

중국천주교의 사제 양성교육*

— 종교교육 현황을 통해 본 중국 천주교의 미래

안승웅**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3. 종교학교 학제와 교육과정 |
| 2. 종교학교의 설립 인허가 과정과
입학 요건 | 4. 사제 양성교육의 특징 |
| | 5. 맺으며 |

【초록】

바티칸과의 단절이 오래되었지만 중국의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보세(普世) 교회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중국 천주교의 사제양성 교육과정 또한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큰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종교학교의 설립과정과 운영에 있어 정부기관의 개입이 광범위하고 영향력 또한 크다. 둘째, 교육과정은 보편적 교육과정을 지키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종교중국화 정책에 따라 중국 철학사상 방면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천주교 종교교육이 지닌 특징은 교육기관의 설립에서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적 종교정책이 관철되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장치가 어떠한 실질적 효력을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중국 천주교, 사제 양성교육, 교리교육, 1회1단, 신철학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7312)

**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강사 (xiong01@hanmail.net)

1.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중국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도래하였다. 종교계의 경우, 신앙인이 급증하여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특히 신장과 티베트 지역의 소수민족문제, 바티칸과 관련된 외교문제, 홍콩·마카오문제,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문제 등에 내재된 종교문제는 중국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대 사안들로 부각되었다. 종교에 대한 정책이 국가운영 전반을 보여주는 창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종교를 둘러싼 이러한 상황변화에 주목하여 중국공산당은 종교문제의 처리를 국가대사의 하나로 중시하게 되었고, 1982년 이른 바 ‘19호 문건’¹⁾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양한 종교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즉,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 당과 국가 지도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정책을 쏟아내었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있어 종교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²⁾ 2016년 시진핑은 제19대 당대회에서 종교사업을 국가운영의 중요한 측면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전국종교공작자회의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견지하고 종교중국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과제를 제시한 뒤,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여 부강한 중국의 꿈을 성취하는데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개혁개방이래 형성된 상대적으로 확대된 종교자유의 공간 속에서 종교계 또한 당과 중앙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면서 문화대혁명 시기에 파괴된 종교조직을 새로이 건설하기 시작했다. 천주교의 경우, 1957년 베이징에서 조직되었던 ‘중국천주교애국회’가 부활되었으며, 이 천주교애국회는 실질적 업무를 위해 1982년에 ‘중국천주교주교단’을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그리고 이 천주교애국회와 천주교주교단(이른바 1회1단)이 중국 천주교계를 이끌어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천주교 1회1단이 국가 종교정책에 호응하면서 동시에 종교조직을 건설함에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전 시기 파괴되었고 명맥이 끊겼던 종교학교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주지하고 있듯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가 특정한 정체성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부가결하기 때문이다. 1

1) “关于我国社会主义时期宗教问题的基本观点和基本政策”, <https://baike.baidu.com/> [2022.01.25.]

2) 1993년 장쩌민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당의 종교정책 견지’, ‘법치에 의거한 종교사무 관리 강화’, ‘종교의 사회주의사회 적응방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 가지 신시기 종교정책을 제시하였다.(『高度重视民族工作和宗教工作』) 한편, 2007년 후진타오는 제17차 당대회에서 종교계 인사와 신도들이 경제사회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요구하였다. (『胡锦涛在中国共产党十七大的报告: 七、推动社会主义文化大发展大繁荣』)

983년 1회1단이 주관하는 ‘중국천주교신철학원’을 베이징에서 설립한 것을 필두로 하여 중국 각 지역의 교구에서도 기존의 학교를 재건하는 형식으로 종교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종교학교는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단체만이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종교단체는 국가종교국의 관할 하에 있다.³⁾ 즉, 사회주의국가라는 특징으로 인해 중국의 종교학교 교육은 그 어느 나라보다 국가의 통치이념이 투영되어 있으며, 동시에 중국만의 독특한 종교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종교교육 현황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국 종교의 현황과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중국의 종교학교 설립 인허가 과정 및 천주교 신철학원의 학제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천주교 사제 양성교육이 지니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종교학교 설립 인허가 과정과 입학 요건

1) 신학교의 설립과정과 각 지역의 신철학원

가톨릭의 사제양성은 신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신학교는 전통적으로 소신학교(小神學校)와 대신학교(大神學校)로 나누어진다.⁴⁾ 소신학교는 일반적으로 “성소의 씨앗을 싹트게 할 목적으로 설립”⁵⁾ 되기 때문에 복음전파를 위주로 어린학생을 상대로 성직자로서의 자질 양성에 중점을 둔 학교이다. 반면 대신학교는 소신학교를

3) 중국에서는 불교, 도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섯 종교만 종교로 인정한다. 이 다섯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단체로는 불교의 ‘중국불교협회’, 도교의 ‘중국도교협회’, 천주교의 ‘1회1단’, 개신교의 ‘기독교전국양회(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 이슬람교의 ‘중국이슬람교협회’ 등이 있다. 이들 종교단체는 모두 국가 종교국의 관할 하에 있다. 중국정부는 이 다섯 종교의 종교단체가 관할하는 종교 활동만 인정하며, 여타 종교나 다른 단체의 종교 활동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미신이나 사이비 종교로 간주하고 불허하고 있다.

4) 1928년 서울 예수성심 신학교와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의 중등교육과정을 동성상업학교의 을조(乙組)로 개편하였다. 이들 신학교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대학교육이 행해지는 학교를 대신학교(大神學校)라 불렀고, 중등교육이 행해지는 학교를 소신학교(小神學校)라 불렀다. 종교학교는 국민교육체제와 관련이 깊어 국가의 교육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었던 가톨릭 신부를 양성하기 위해 1951년에 개교한 사립고등학교인 성신고등학교가 1983년 2월 폐교됨으로써 한국 내에 있어서의 소신학교 교육과정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신학교의 교육을 대신하여 각 교구에서 예비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신학교는 주일이나 방학을 활용하여 대신학교(즉, 신학대학)에 진학하기 전 중학교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p.452.

거친 뒤 본격적으로 사제가 되고자 하는 이를 위해 철학과 신학 교육에 중점을 둔 학교이다.⁶⁾ 중국에서는 소신학교와 대신학교를 각각 소수원(小修院)과 대수원(大修院)이라 부른다. 소수원이라 불리는 소신학교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미성년자에 대한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사회주의 종교정책에 따라 사라졌으며, 대수원, 즉 대신학교는 1980년대 이래 신철학원(神哲學院)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비되고 있다.⁷⁾

중국의 헌법은 종교와 교육의 분리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어떠한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도 임의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특히 교역자 양성 교육은 국가가 인가한 종교단체, 즉 종교 내부의 종교학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종교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규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 <종교사무조례(宗教事務條例)>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종교사무조례 11조

종교학교는 전국적 종교단체 및 성, 자치구, 직할지의 종교단체가 설립한다. 그 밖의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종교사무조례 12조

종교학교를 설립하려면 전국적 종교단체에서 국무원 종교사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종교학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국무원 종교사무부서의 심의기준을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종교사무부서는 전국적 종교단체의 신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서 보고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기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⁸⁾

<종교사무조례>는 “중국 종교정책과 종교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최고의 법률적 권위를 갖는 법규”⁹⁾로서 2005년 처음 시행되었고, 2017년 한 차례의 대대적인 수정을 거친 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종교사무조례>는 ‘종교학교는 전국적 종교단체 및 성, 자치구, 직할지의 종교단체가 설립한다. 그 밖의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종교학교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국무원 종교사무부서, 즉 국가 종교사무국의 심의와 인가를 받아야 한

6) “대신학교는 사제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대신학교의 학생교육은 전적으로 스승이요 사제이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바로 영혼들의 참된 목자를 양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p.453.

7) 신철학원은 신학원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개신교보다 철학교육을 강조하는 특징을 부각하고 개신교의 신학원과 구별하기 위해 점차 신철학원이라 부르는 추세에 있다.

8) 강경구 등, 『시진핑시대, 중국 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신아사, 2018. p.13.

9) 강경구 등, 『시진핑시대, 중국 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p.4.

다고 명시하고 있다. 13조에서는 종교학교 설립 조건에 대하여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다.¹⁰⁾

천주교에 있어 종교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전국적 종교단체는 1회1단(‘중국천주교 애국회’와 ‘중국천주교주교단’)이다. 이 1회1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천주교애국회는 중국천주교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지도단체로서 1957년 베이징에서 성립했다. <중국천주교애국회장정>제2조에서 “본회는 전국 천주교 주교, 신부, 신도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애국애교(愛國愛教)의 사회단체이다.”¹¹⁾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본회는 본 업무 주관단위인 국가종교사무국(國家宗教事務局)과 사단 등기관리기관인 민정부(民政府)의 업무지도와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¹²⁾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천주교주교단은 천주교계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 지도 단체로서, 1980년 제1차 중국천주교대표대회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1982년 ‘중국천주교교무위원회’를 산하 기관으로 둬으로써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중국천주교주교단장정>제2조에서 “전국단위의 비영리 천주교 교무 영도기구이다.”¹³⁾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본 단체는 본 업무 주관단위인 국가종교사무국과 사단 등기관리기관인 민정부의 업무지도와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¹⁴⁾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교, 신부, 신도들의 전체 모임인 ‘애국회’와 주교만의 모임인 ‘주교단’은 각기 다른 두 단체이나,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무원의 관계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체를 ‘1회1단’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 ‘1회1단’은 각각의 장정(章程)에서 살펴지듯, 철저히 국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 게다가 성, 자치구, 직할지의 종교단체는 모두가 1회1단의 산하 기관임을 감안한다면,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종교단체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가톨릭 종교학교 즉, 신철학원의 설립은 <종교사무조례>의 세칙과 1회1단의 장정을 통해 알 수 있듯, 국가기관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학교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는 개교한 학교를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체

10) 종교사무조례 제13조: 종교학교의 설립은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명확한 양성목표와 학사규정 및 교과과정의 설치계획이 있어야 한다. (2) 양성조건에 부합되는 학생자원이 있어야 한다. (3) 필요한 학사운영 자금과 안정된 경비의 출처가 있어야 한다. (4) 교육의 임무와 학사규모에 필요한 교육장소와 시설설비가 있어야 한다. (5) 학교를 전담하는 책임자와 자격을 갖춘 전임교사 및 내부 관리조직이 있어야 한다. (6) 배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시진핑시대, 중국 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p.14.

11) 第2条 本会是由全国天主教神长教友自愿结成的爱国爱教的群众团体.

12) 第4条 本会接受业务主管单位国家宗教事务局和社团登记管理机关民政部的业务指导和监督管理.

13) 本团为中国天主教的全国非营利性教务领导机构.

14) 第4条 本团接受业务主管单位国家宗教事务局和社团登记管理机关民政部的业务指导和监督管理.

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국가종교사무국에 관리하는 천주교 종교학교는 아래와 같다.

宗教	单位	院校名称	地址	负责人
天主教	中南六省(区)天主教“两会”	中南神哲学院	湖北省武汉市武昌区花园山2号	张力
天主教	中国天主教“一会一团”	中国天主教神哲学院	北京市大兴区兴业大街圣和港5号	马英林
天主教	天主教上海教区	天主教佘山修院	上海市松江区佘山镇环山路326路	兰晓鹏
天主教	四川、云南、贵州、重庆天主教“两会”	四川天主教神哲学院	四川省成都市县红光镇河滨街128号	陈功鳌
天主教	陕西省天主教“两会”	陕西天主教神学院	陕西省西安市雁塔区鱼化寨老烟庄	李景玺
天主教	山西省天主教“两会”	山西省天主教修道院(暂时停办)	山西省太原市万柏林区东社乡下庄村	常同希
天主教	辽宁、吉林、黑龙江天主教“两会”	沈阳天主教神学院	辽宁省沈阳市沈河区奉天街50-1号	重庆田
天主教	河北省天主教“两会”	河北省天主教神学院	河北石家庄学府路3号	李占江
天主教	北京市天主教爱国会、北京市天主教教务委员会、天主教北京教区	天主教神哲学院	北京市海淀区后人家248号	师惠敏

* <http://www.sara.gov.cn/tzj/index.jhtml>

국가종교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천주교 종교학교는 위 도표대로 9 곳이 있다. 수도 베이징에 두 곳을 두고 교구별로 지역 안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종교사무국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지린신학원[吉林神学院, 吉林神哲学院], 산둥성수도원[山东圣神修院], 스자좡신철학원[石家庄神哲学院] 등이 검색되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이름은 검색되나 학교 사이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폐교되었거나 다른 학교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천주교 종교학교는 공식 명칭 외에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검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국천주교1회1단이 주관하는 ‘중국천주교신철학원’은 수도 베이징 다싱현에 있기 때문에 ‘천주교베이징신철학원[天主教北京神哲学院]’, ‘다싱신철학원(大兴神哲学院)’, ‘다싱현전국신철학원[大兴县全国神

哲学院’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하여 ‘전국수도원[全国修院]’이라 불리기도 한다.¹⁵⁾

2) 신철학원 입학 요건

천주교신철학원의 입학요건은 신철학원이 소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1회1단에서 직접 관여하는 베이징의 중국천주교신철학원의 입학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 중국천주교신철학원을 중심으로 입학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고등학교 졸업이상이어야 하며, 예비신학교[备修院]에서 최소 2년은 공부해야 한다. 베이징교구 신철학원의 경우 원칙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이어야 하나 중학교 졸업생도 예비신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상당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쓰촨천주교신철학원은 중학교 졸업이상이면 가능하다.

둘째,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심신이 건강하여야 한다. 베이징교구 신철학원은 만 18-33세로 한정하고 있다. 쓰촨천주교신철학원은 만 16-25세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결혼하지 않고 평생 교회에 헌신할 뜻을 지니고 열심히 기도하며 단체수도 생활에 적극 임하길 원해야 한다. 베이징교구 신철학원의 경우, 신앙과 인생 및 혼인과 가정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가 있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 혹은 보호자가 동의하고 서명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쓰촨천주교신철학원은 용모단정하고 전염성 질병과 정신병 경력이 없는 남성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교회의 기본교리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소속교구 혹은 본당 신부의 추천서와 지원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원자의 간단한 성장환경, 성격과 특징, 수도의 길로 들어서는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필답고사와 면접을 거쳐야하는데, 베이징 교구는 필답고사로 교리 및 어문과 영어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교구 신철학원의 경우 필답고사와 면접이 있음을 고지

15)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신철학원 명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中國天主教北京神哲学院: 天主教北京神哲学院, 大兴神哲学院(大兴县全国神哲学院), 全国修院

北京天主教神哲学院: 北京神哲学院, 北京后八家神哲学院

河北省天主教神学院: 河北神学院, 河北省天主教神哲学院, 石家庄神哲学院

山西省天主教修道院: 山西神学院(孟高维诺山西修院Montecorvino몬테코르비노)

沈阳天主教神学院: 沈阳神学院

中南神哲学院: 中南神学院, 天主教中南神哲学院

天主教佘山修院: 佘山神学院, 中國天主教佘山修院神哲學部

四川天主教神哲学院: 四川神学院, 郫县天主教神哲学院

陕西天主教神学院: 陕西神学院, 陕西天主教神哲学院

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않고 있다. 합격자는 세례, 견진성사 증명, 가장의 의견서, 신체검사(건강검사), 최고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베이징교구 천주교신철학원은 세례를 받은 지 만 3년은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종교학교 학제와 교육과정

1) 신철학원의 학제와 교과과정

중국의 대신학교 즉, 신철학원은 일반적으로 학제가 6년 과정으로서 철학과 신학을 단계적으로 배운다. 중국천주교신철학원 홈페이지에는 학년별 교과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학교연혁’에서 교과과정이 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다.¹⁶⁾ 이를 옮기면 아래와 같다.

중국천주교신철학원은 본과와 양성반이 설치되어 있다. 본과는 (철학 2년, 신학 4년) 총 6년제이며, 양성반은 1년에서 2년으로 진행된다. 본과에서는 종교과목과 문화과목이 개설된다. 종교과목은 천주교신철학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신학분야와 철학분야로 나누어진다.) 신학분야는 성경학, 교의신학, 윤리신학, 교회사, 교회법, 사목학, 전례학, 수덕신학 등이 있다. 철학분야는 논리학, 인식론, 본체론(존재론), 심리학, 철학사 및 중국철학사가 있다. 문화과목에는 라틴어, 중국어, 역사지리, 정치, 음악과 체육, 그리고 제 2외국어가 있다. 양성반에는 신철학, 라틴어 등이 개설된다. 철학 2년 과정에서는 논리학, 인식론, 존재론, 심리학, 철학사, 중국철학사를 배우며, 신학 4년 과정에서는 성경학, 교의신학, 윤리신학, 교회사, 교회법, 사목학, 전례학, 라틴어, 한어, 역사지리, 정치, 음악, 체육, 외국어 등을 배운다. 석사 2-3년 과정에서는 교리신학, 사목신학, 영성신학으로 전공이 세분화 된다. 양성반에서는 신철학, 라틴어, 전례학, 수덕신학을 배운다.¹⁷⁾

16) 중국의 신철대학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는 잘 검색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포털인 바이두[百度]에서도 중국천주교신철학원만이 사이트 검색 첫 페이지에 제시하고 있을 뿐, 기타 신철대학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검색된 신철대학 홈페이지라 할지라도 교과과정이나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국가종교사무국 사이트에서 언급되는 8개 신철대학의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 홈페이지가 검색되지 않거나 간략하게만 만들어져 있다. 국가종교사무국 혹은 천주교 1회1단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산둥성신수도원[山东圣神修院], 스자좡신철학원[石家庄神哲学院]의 경우 이름만 검색될 뿐 학교 홈페이지는 검색되지 않고 있다.

17) 中国天主教神哲学院设本科和培训班, 本科为6年制, 培训班为1至2年. 本科设宗教课和文化课. 宗教课进行系统的天主教神哲学教育. 神学部分包括圣经学、教义神学、伦理神学、教会史、教会法、牧

이밖에 교과과정이 일부 공개된 일부 신철대학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난신철학원[中南神哲學院]은 6년제로서, 철학2년과 신학 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학 2년 과정에서는 논리학, 우주론, 심리학, 존재론, 철학사, 중국철학, 교리, 영성 수련, 교회사, 교회음악, 전례, 영어, 어문, 중국역사, 체육, 법률, 등소평 이론 등을 배운다. 그리고 신학과정 4년 과정에서는 윤리신학, 교리학, 성경, 교회법전, 정치, 사목학 등을 배운다.

쓰촨천주교신철학원[四川天主教神哲學院] 또한 철학 2년 신학 4년의 6년제로 이루어져 있다. 개설과목으로는 영성, 교리, 철학, 구약, 신약, 교리신학, 윤리신학, 전례, 라틴어, 교회사, 교리교육, 설교학, 사목신학, 천주교법전, 정치, 어문역사, 지리, 영어, 체육, 서법, 교육학, 심리학, 공공관계, 미학개론, 기독교 중국문화, 현대과학기술개론, 유불도개론, 이슬람교개론, 당대 로마천주교 등 32개 교과가 있다.

우리나라 대신학교의 교과과정은 총 70여개의 교과목이 학년별로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 철학과 신학 별로 대표적인 교과목만 간단히 소개하고 학년 별로 어떠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핀 세 신철학원의 예에서 살펴지듯 소개된 개설 교과목은 각각 조금씩 다른데, 이는 신철학원별로 교과과정이 상이한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교과과정은 대동소이하나 교과목 소개에서만 차이가 난 것인지 확실치 않다.

2) 지린신철학원[吉林神哲學院]

중국 천주교 신철학원의 학제와 교육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지린신철학원[吉林神哲學院]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린신철학원은 주)15 도표에서 살펴지듯 국가종교사무국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¹⁸⁾ 이 때문인지 확실치 않으나 지린신철학원의 학교 홈페이지는 중국의 어느 신철학원 보다 훨씬 자세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져 있다. 비록 학년별 교과과정은 소개하고 있지 않으나 영성훈련기간, 철학학습기간, 신학학습기간이란 세 시기 동안의 교육 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이를 통해 중국의 신철학원이 학년별로 어떠한 교과목이 개설하는지 그 추세를 알 수 있다. 먼저 전체 교육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灵学、礼仪和神修学，哲学部分包括逻辑学、认识论、本体论、心理学、哲学史和中国哲学史。文化课包括拉丁语、汉语、史地、政治、音乐和体育，以及一门第二外语。培训班设神哲学、拉丁语、礼仪和神修课。 <http://www.nsecc.cn/html1/folder/1405/3174-1.htm>

18) 하지만 ‘중국천주교’ 관방 사이트에 지린신철학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린신철학원 또한 1회 1단의 관할 하에 있는 신철학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교육방안

교육의 각도에서 신철학원의 전체 교육이념을 적극적으로 융합시키기 위해 본 학원은 학제는 8년 중 16학기 수업으로 진행된다.¹⁹⁾ 영성훈련[灵修] 1년, 철학 3년, 신학 4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점제를 실시한다. 매주 1과목 한 학기 16주를 수강하면 1학점이 된다. 매 학기는 16주로 구성되며, 1주는 기말고사기간이다. 매년 두 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1학기는 7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강하며,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종강한다. 2학기는 2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강하며, 6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종강한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전일 수업이 진행되며, 토요일은 오전에만 수업이 있다. 수사는 매년 11월 한 학기가 끝나면 각 단계에 맞게 각기 다른 내용으로 두 달 동안의 실습 생활을 하게 된다.²⁰⁾

지린신철학원은 총 8년 과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일반 신철학원의 6년 과정보다 2년이 많다. 영성훈련 기간 1년이 따로 추가되어 있고, 철학 학습 기간도 1년이 더 연장되어 있다. 예비신학교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중국적 상황에 맞추어 2년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²¹⁾ 첫 번째 영성훈련기간을 문학기간이라 칭하는 것에서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첫 번째 영성훈련 1년 과정은 신앙을 심화하고 단체에 융합하며 사제성소 식별[圣召分辨]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린신철학원 영성훈련기간 교육방안

영성훈련기간은 신입생이 수도원생활을 정식으로 시작하는 1년에 해당한다. 문화 및 교리 과목 외에 영성훈련 및 성소(聖召) 방면과 관련이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 학제는 2학기이며, 문화방면의 기초지식과 전통문화 과정을 주로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사의 중국어 수준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신철학 학습을 위한 튼튼한 문화적 기초를 다진다. 주요과목으로는 어문, 영어, 라틴어, 음악, 역사, 지리, 예의, 기본교리 등이 있다.

19) 중국의 신철학원이 일반적으로 6년제인 것에 비해 지린신철학원이 2년이 더 긴 것은, 중국천주교신철학원에서 입학요건으로 제시하였던 예비신학교 과정 2년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20) <教学方案>为能从教学的角度积极地配合整个神哲学院的培育理念, 本学院学制八年, 共十六个学期: 灵修年一年, 哲学三年, 神学四年. 实行学分制: 每周上1课时, 上满一个学期的16周, 算为一个学分. 每学期教学16周, 期末考试1周. 每一学年分为两个学期. 第一学期于7月最后一个星期二开学, 11月份的最后一个星期五结束; 第二个学期于2月最后一个星期二开学, 6月最后一个星期五结束. 周一至周五全天授课, 周六半天授课. 修士在每年的11月份课程结束后, 针对不同的阶段, 开始不同内容的为期两个月的实习生活. <http://www.jlseminary.net/article/view.asp?id=9>

21)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중국천주교신철학원의 입학요건으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과 예비신학교에서 최소 2년간의 공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방식

수업방식: 전통 교학방식, 학점제 교학방법을 채택한다.

실습생활: 영성훈련기간에 반드시 8주간의 실습을 완수해야 하며, 내용은 자원봉사나 현장체험을 위주로 한다.²²⁾

두 번째는 철학 학습기간이다. 인격양성을 위해 영혼과 육체의 정합, 자율, 자유, 정의, 인애, 책임감을 중시한다. 헌신적 생활습관 양성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깨닫고 하느님의 사랑과 전능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린신철학원철학학습기간 교육방안

철학학습기간: (2-4년) 지린신철학원은 교회정신에 입각하여 철학학습 단계를 3년으로 바꾸었다. “대신학교는 사제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대신학교의 학생교육은 전적으로 스승이요 사제이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바로 영혼들의 참된 목자를 양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사제양성에 관한 교령, 사목자 양성 4)

교육과정: 학제는 3년 6학기이다.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을 배우며 이중에서 교회철학을 위주로 20 여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철학 과목들은 신학생들이 특히 인간과 세상과 하느님에 대한 건설하고 일관성 있는 지식을 얻도록 이끌어야 한다. 영구한 가치를 지닌 철학 자산을 토대로, 시대의 진전에 따른 철학 연구, 특히 자기 나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구와 최근 학문 진보를 참작하여, 신학생들이 현대의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동시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적절히 준비시켜야 한다.”(사제양성에 관한 교령, 철학연구 15)

교육방식:

A. 수업방식: 전통 교학방식, 학점제 교학관리 방식을 채택하며, 전일제 수업과정을 실시한다.

B. 실습생활: 철학학습기간 수사는 반드시 24주간의 실습을 완수해야 한다. 자원봉사, 신앙체험 및 기도활동을 위주로 한다.

C. 철학학습기간 3년째 2학기에는 최소 5,000자 이상의 철학졸업 논문을 완성해야 한다.

D. 철학학습기간을 수료한 수사에게는 2품 독서직을 수여한다.²³⁾

22) <吉林神哲学院灵修年培育方案>灵修年是新生正式进入修院的第一年, 除文化及教理课程外, 还要接受灵修与圣召等方面的相关培训. 课程设置: 学制二个学期, 主要修读基础文化知识及传统文化课程, 借以提高修士的汉语水平与对传统文化的了解, 为以后修习神哲学打下良好的文化基础. 主要课程有: 语文、英语、拉丁文、音乐、历史、地理、礼仪, 基本要理. 培育模式: 授课方式: 传统授课方式, 采取学分制教学管理模式; 实习生活: 灵修年期间必须完成8周的实习, 内容以爱心服务及社会实践为主. <http://www.jlseminary.net/article/view.asp?id=10>

23) <吉林神哲学院哲学年之知识培育方案> 哲学年: (2-4年)吉林神哲学院本着教会的精神将哲学阶段

세 번째는 신학 학습기간이다. 그리스도 정신을 지도하는 사제 목자로서의 역할을 배운다. 신앙의 스승으로서, 성스러운 말씀의 전달자로서, 교회의 관리자로서, 성사(聖事)의 집행자로서, 목자로서의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린신철학원 신학학습기간 지식교육방안

신학학습기간: (5-8년)

교육과정: 1년간의 영성훈련 기간과 3년간의 철학학습 기간을 거친 신학에 정식으로 입문하는 수사가 8학기 동안 교회와 신학 전문분야를 학습한다. 주요과목으로는 성경강독[성경섭렵?], 신리신학, 윤리신학, 목령신학(사목신학), 영수신학 등의 신학과 기타 50여 과목이 있다. “신학생들이 하느님의 명확한 계시에서 길어 올린 가톨릭 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자기 영성 생활의 양식으로 삼도록, 또 사제 교역에서 이를 선포하고 설명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육방식: 마지막 학기 최소 10,000 자 이상 되는 졸업논문을 써야하며 논문심사도 거쳐야 한다.

수업방식: 전통 교학방식, 학점제 교학관리 방식을 채택하며, 전일제 수업과정을 실시한다.

실습생활: 신학학습기간의 수사는 매년 8주간의 사목실습을 거쳐야한다. 내용으로는 교우탐방, 예비신자 교육, 본당 관리 등이 있다.²⁴⁾

修改为三年。“在大修院中所施于修生的完整教育，应指向一个目标，即按照耶稣基督乃导师、司祭与牧者的标准，培养他们成为真正的牧人”。(司铎培育法令4)课程设置：学制三年，六个学期，主要修习西方、东方哲学，其中以教会哲学为主的二十余门课程。“哲学课程之教授，首先在于领导修生，根据万古常新的哲学真理，对人、对宇宙和天主，获得一个有根据而又和谐的认识；同时以应注意当代的哲学潮流，尤其是那些在其本国影响较大者；再者，对现代科学的进步亦然，使他们能对当代的思想，具有相当的认识，并作适当的准备，好能与现代的人交往”(引“司铎之培养法令”，15号)。培育模式：A. 授课方式：传统授课方式，采取学分制教学管理模式，全天制课程；B. 实习生活：哲学年期间修士必须完成实习24周，以爱心服务、信仰体验及祈祷活动 C. 哲学三年级下学期须完成一篇不少于5000字的哲学结业短文。D. 哲学结业修士领受二品读经职。 <http://www.jlseminary.net/article/view.asp?id=11>

- 24) <吉林神哲学院神学年之知识培育方案> 神学年：(5-8年)课程设置：经过一年的灵修年与三年哲学年的学习，正式步入神学年的修士开始了为期八个学期的教会专业神学的学习。主要课程涉猎圣经、信理神学、伦理神学、牧灵神学、灵修神学及其它神学等五十余门课程。透过专业神学知识的学习，“使修生能从天主的启示中，细心吸取公教会的道理，深入研究，使能成为个人灵修生活的食粮，并能在司铎的职务中传播、说明、维护之” 培育模式：最后一学期完成一篇不少于10000字的毕业论文，并通过答辩 授课方式：传统授课方式，采取学分制教学管理模式；开设全天制课程；实习生活：神学年期间修士每年必须完成8周的牧灵实习；内容：教友探访、慕道者培育、堂区管理等。 <http://www.jlseminary.net/article/view.asp?id=12>

4. 사제 양성교육의 특징

1) 보편적 교과과정의 유지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그 조직이 체계화된 종교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지듯, 중국의 사제양성 교육은 - 비록 중국 특수성에 기인한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을 지니고 있지만 - 대체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제양성 시스템과 교육내용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교과과정은 기간(중국 6-8년, 한국 7년)²⁵⁾, 시기별 교과내용(인문교양 -> 철학 -> 신학 순) 등을 살펴볼 때, 중국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대신학교의 보편적 교과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린신철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방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첫째, 지린신철대학은 교육목표로 신철학 지식의 배양, 교무 관리능력의 제고, 인격도야, 깊은 신앙심과 성숙한 사제로서의 소명의식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²⁶⁾ 이는 우리나라 대신학교의 ‘지성교육’, ‘영성교육’, ‘인성교육’, ‘사목교육’이라는 4대 교육목표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점은 바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 제시한 인간적 양성(human formation), 영적 양성(spiritual formation), 지적 양성(intellectual formation), 그리고 사목적 양성(pastoral formation)이라는 네 가지 과제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지린신철대학의 교육목표를 통해 볼 때 중국의 사제양성 교육시스템은 가톨릭 사제양성 교육시스템의 기본 틀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린신철학원의 교수진은 적지 않은 해외유학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학장 첸리(钱利) 신부는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와 살레시안 대학교를, 행정출납을 담당하고 있는 쉬춘펑(徐春鹏) 신부는 멕시코 교황청 대학교를, 영성훈련과정 주임을 맡고 있는 간루이빈(甘瑞斌) 신부는 타이완 푸린(輔仁) 로베르토 벨라르미노(St. Robert Bellarmine) 신학대학을, 도서관장인 쉬징우(徐井伍) 신부는 한국 인천천주교대학교를, 교무주임인 왕원이(王文义) 신부는 로마 교황청 도시대학(Pontificia u

25) 신철학원의 교육기간과 입학요건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 교육수준 및 기타 조건이 상이한 경우가 많은 중국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26) 培养目标: 按照基督的教导, 教会的传承, 培育肖似善牧基督, 并具有使徒精神的真正牧者. 给予修士与牧职相称的神哲学知识、管理能力以及身心健康等各方面综合能力的培育. 使其具备健全的人格、深度的信仰及成熟的司铎圣召. <http://www.jlsemnary.net/article/view.asp?id=9>

niversità urbaniana)을, 총무처장인 저우상민(周向民) 신부는 한국 수원천주교대학교를 졸업하였다. 학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교수진이 해외 신학대학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가톨릭 사제양성에 필요한 보편적 교과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⁷⁾

지린신철학원이 중국의 신철학원의 사제양성과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나, 모든 단체가 국가정책을 따라야 하고 모두 비슷한 체제를 유지해야하는 중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가톨릭 대신학교의 보편적 교과과정의 기본 틀은 지린신철학원만이 지닌 특징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2) 천주교 중국화 교과목의 강화

중국의 교과과정에는 중국정치사상, 중국역사, 중국문화, 중국철학 과목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2016년 시진핑이 전국종교공작자회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견지하고 종교 중국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국가의 종교 중국화 정책에 따라 신철학원의 교육과정에 중국철학사상 및 문화 관련 과목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2017년 7월, 중국천주교 1회1단은 제9회 제1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천주교중국화방향견지 5개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신철학원의 교과과정 조정을 통한 천주교 중국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신철학원의 교과과정과 관련이 있는 종교 중국화 정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신철학원에서 중국 우수문화를 교육하여 천주교와 중국의 우수문화를 융합한다. 둘째, 신철학원을 중심으로 중국식 신학사상을 연구하고 구축해 나간다. 먼저 천주교와 중국 우수문화와의 융합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 천주교와 중국 우수문화의 융합을 촉진한다.

교회 내에서 중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자각과 신념을 배양하고, 중국의 우수한 인문 전통을 활용해 기독교의 표현방식을 풍부하게 한다. 교회사 내에서의 중국화 경험을 총결하여 중국적 시야를 갖춘 교회사 연구를 개척한다.

1)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교회의 인식과 동일시를 확대한다.

(1) 각종 방식을 통해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교회의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중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자각과 신념을 수립한다. 중국의 전통적인 도덕의식을 그리스도의 복

27) 지린신철학원만 교수진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을 뿐, 기타 신철대학은 학교 홈페이지조차 찾기 힘들며, 있다하더라도 교수진 소개란이 아예 만들어져 있지 않거나 모두 폐쇄되어 있다.

음정신에 합치시켜서 인문중국 속에서 교회신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촉진한다.

(2) 교구와 본당(本堂)의 학습반 및 교리강습 과정에 중국 전통문화의 내용을 증가시켜서, 기독교도의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신앙과 중국 전통문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3) 신학에 조예가 깊고 중국문화에 대한 소양이 심후한 연구 인력과 신철학원 교사진을 집중 양성한다.

(4) 신철학원의 교과과정 배정 시 중국 전통문화와 중국 전통철학교학을 중시하여, 중국문화의 사유방식으로써 복음 진리를 강연할 수 있는 신철학원생을 양성한다.

<천주교중국화방향견지 5개년 사업계획>에서는 이처럼 하나의 장을 할애하여 천주교와 중국 우수문화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천주교와 중국 우수문화의 융합’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문화를 적극적 수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아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내용과 일치한다.

라) 민족의 특성과 전통에 대한 적응 규범

37. 교회는 신앙이나 공동체 전체의 선익에 관련되지 않는 일에서, 엄격한 형식의 통일성을 적어도 전례에서는 강요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민족과 인종의 정신적 유산과 자질을 계발하고 향상시킨다. 그리고 민족들의 풍습에서 미신이나 오류와 꺾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호의로 존중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고스란히 보존하며, 더욱이 참되고 올바른 전례 정신에 부합하기만 하면 때때로 전례 자체에 받아들인다.²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도 ‘여러 민족과 인종의 정신적 유산과 자질을 계발하고 향상시킨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4장 1조 4항 ‘신철학원 교과과정 배정 시 중국 전통문화와 전통철학교학을 중시하여, 중국문화의 사유방식으로써 복음 진리를 강연할 수 있는 신철학원생을 양성한다.’라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례에 있어 수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가톨릭 전통신학 체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 ‘제5장 중국교회 특색을 구비한 신학사상을 구축한다.’에서 그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5. 중국교회 특색을 구비한 신학사상을 구축한다.

교회 중국화와 관련된 역사문헌을 수집하고 연구한다. 성경, 교회전통,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출발해서 보세교회(普世教会)에 관련된 사유와 성과를 흡수해서

2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p.41.

천주교 중국화의 기본적인 신학 저술을 만든다. 중국사상의 특징을 구비한 신학 표현법을 확장하고, 연구 플랫폼과 연구 대오의 건설에 집중한다. --- 중략 ---

3) 중국 천주교 신학사상과 표현방식을 혁신한다.

(1) 천주교 신철학(神哲学)과 중국 철학사상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종교 간의 대화를 강화하고, 중국인과 기독교도의 생활경험을 융합하여 교회의 신학 표현방식을 풍부히 하고 혁신한다.

(2) 교회 전통신학의 형이상학과 본체론의 틀에서 벗어나, 중국문화의 특징을 구비하고 윤리·자연·천인합일을 중시하는 사유체계를 접목하여 중국식 지혜를 갖춘 신학사상을 모색한다.

(3) 현재 사회 속의 교회 기층 신도의 신앙과 영적 체험을 중시하고, 천주교 중국화 신학이론과 실천 사이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와 사상을 신철학원과 지방교회에 보급한다.²⁹⁾

5장에서 천주교 중국화는 ‘교회 전통신학의 형이상학과 본체론의 틀에서 벗어나, 중국문화의 특징을 구비하고 윤리·자연·천인합일을 중시하는 사유체계를 접목하여 중국식 지혜를 갖춘 신학사상을 모색’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천주교 중국화 신학이론을 신철학원과 지방교회에 보급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천주교 중국화를 통해 ‘교회 전통신학의 형이상학과 본체론의 틀에서 벗어난’ 중국화 한 신학이론을 신철학원과 지방교회에 보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티칸이 지도하는 천주교와 다른 중국만의 독자적 천주교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한다. 외래 종교인 불교가 중국의 유교, 도교와 결합하면서 중국에는 중국 불교만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천주교 중국화 정책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의 개입과 통제

앞장에서 언급한 <종교사무조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종교학교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종교학교 설립과 운영에까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21년, 중국정부는 더 나아가 기존의 <종교학교 외국국적 전문가 초빙임용 시행세칙(宗教院校聘用外籍专业人员办法)>(1998년 공포)과 <종교학교 설립 시행세칙(宗教院校设立办法)>(2007년 공포)을 통합하여 총 9장 83조로 이루어져 있는 <종교학교 관리 시행세칙(宗教院校管理办法)>을 제정하였다.³⁰⁾ <종교학교 관리 시행세칙>은

29) 강경구 외, 『시진핑 시대, 종교중국화 공정』, 신아사, 2021, p.318.

30) “宗教院校管理办法”, http://www.kaili.gov.cn/zfbm/mzzjj/zcwj_5682314/202105/t20210511_6805

종교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다소 포괄적이었던 <종교사무조례>를 보완하여 종교학교의 설립 인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학습내용과 학교운영방안에까지 세세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학교 관리 시행세칙>의 여러 세칙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2조 종교학교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교육과 애국주의교육, 사회주의핵심가치관 교육, 법치교육, 중화우수전통문화교육을 실시하고, 국기 게양과 중요 장소에서의 국가 연주 관련 제도를 지켜 교직원과 학생의 국가의식, 국민의식, 법치의식을 강화해야 한다.³¹⁾

중국의 모든 대학에는 필수교과과정으로서 정치사상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종교학교 예외는 아니어서 전체 수업에서 최소 10%는 정치사상수업을 진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기 게양과 국가 연주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진핑 시대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가주의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강화된 국가주의 정책은 단순히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가 종교학교에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와 감독까지 하려 하는 것이다.

제72조 국가종교사무국과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는 실제 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교육 감독지도원을 선발하여 파견할 수 있으며, 종교학교의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지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³²⁾

국가종교사무국이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서 감독지도원을 파견하여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감독하고 지도할 분야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이 72조에는 6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1항은 교육과 연구 활동이 법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는가의 여부이며, 2항은 국가종교사무국, 성급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서 교부한 사항 실천 여부이다. 이 두 가지 항목만으로도 국가가 종교학교에 개입하는 영역이 얼마나 넓은 지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종교학교 관리 시행세칙>은 본 시행세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처벌에 관한 조항까지 명시하고 있다.

0697.html

31) 第22条 宗教院校应当在教职工和学生中开展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教育、爱国主义教育、社会主义核心价值观教育、法治教育、中华优秀传统文化教育, 坚持升国旗与重要场合奏唱国歌制度, 增强教职工和学生的国家意识、公民意识、法治意识.

32) 第72条 国家宗教事务局和省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根据实际工作需要, 可以选派教育督导人员, 对宗教院校下列事项开展教育督导工作.

제77조 종교학교가 본 시행세칙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규에 의거하지 않고 활동을 전개할 경우, <종교사무조례> 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³³⁾

종교학교가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으면 <종교사무조례> 제65조에 의거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사무조례> 제65조에는 시정명령, 책임자 교체, 설립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만약 위법소득이나 비합법적 재물이 있을 경우 몰수까지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종교학교에 대한 중국정부의 개입과 통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중국의 5대 종교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천주교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가톨릭에 대한 개입과 통제는 향후 중국과 바티칸 간에 진행될 수교협상에서 주요 논쟁거리로 부상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5대 종교에 대한 종교 중국화 정책 추진 양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4. 맺으며

중국의 종교학교 교육은 그 어느 나라보다 국가의 통치이념이 철저하게 투영되어 있으며, 동시에 중국 특유의 종교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종교교육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 종교의 현황과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중국 신철학원의 인허가 과정과 입학 요건, 그리고 신철학원의 학제와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천주교 사제 양성교육이 지닌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천주교는 바티칸과의 단절이 오래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가톨릭 보세(普世) 교회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중국 천주교의 종교교육은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큰 차별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은 보편적 교육과정을 지키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종교 중국화 정책에 따라 중국 철학사상 방면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 종교학교의 설립과정과 운영에 있어 정부기관의 개입이 광범위하고 영향력 또한 크다.

결론적으로, 중국 천주교 종교교육이 지닌 특징은 교육기관의 설립에서 교육내용

33) 第77条 宗教院校违反本办法规定, 未依法依章程开展活动, 按照<宗教事务条例>第65条予以处罚.

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적 종교정책이 관철되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가톨릭 종교학교, 즉 신철학원은 지속적인 국가의 개입과 통제 속에서 가톨릭 사제양성 교육 본연의 기능을 점차 잃어갈 수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개인적, 영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종교 활동에서 어떠한 실질적 효력을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단행본>

강경구 등, 『시진핑시대, 중국 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신아사, 2018.

_____, 『시진핑시대, 종교중국화 공정』, 신아사, 202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2020.

<논문>

안승웅, 「중국·바티칸 수교협상과 주교임명 관련 법률제도」, 『중국학』, 제74집, 2021.

<인터넷자료>

“关于我国社会主义时期宗教问题的基本观点和基本政策”, 『党史百科』, <https://baike.baidu.com> [2022.01.25.]

『天主教』, 『国家宗教事务局』, <http://www.sara.gov.cn/tzj/index.jhtml> [2022.02.01]

『吉林天主教神哲学院』, <http://www.jlseminary.net/> [2022.02.01.]

“宗教院校管理办法”, 『凯里市人民政府民族宗教事务局』, http://www.kaili.gov.cn/zfbm/mzzjj/zc_wj_5682314/202105/t20210511_68050697.html [2022.02.01.]

“学院沿革”, 『中国天主教神哲学院』, <http://www.nsccl.cn/html1/folder/1405/3174-1.htm> [2022.02.01.]

“胡锦涛在中国共产党十七大上的报告: 七、推动社会主义文化大发展大繁荣”, 『中国日报』, http://www.chinadaily.com.cn/hqzg/2007-10/25/content_6205616.htm [2022.02.0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中國天主教, 司祭養成教育, 中國天主教愛國會, 中國天主教主教團, 神哲學院				
	영문	Chinese Catholicism, Priest training system, Chinese Catholic Patriotic Association, Chines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Catholic theological seminary				
<div>Chinese Catholic Priests Training System</div> <div>: The Future of Catholicism in China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Religious Education</div> <div>Ahn Seung-Woong</div> <p>China's religious school education is thoroughly reflected in the state's ideology. At the same time, it reflects the religious reality unique to China. Therefore, examining the status of religious education in China is one of the most rational and effective ways to predict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of Chinese religion.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atholic priest training education focusing on the licensing process and admission requirements of Chinese religious schools, and the interdisciplinary system and curriculum of religious schools. Catholicism in China has long been cut off from the Vatican. However, Catholicism in China basically follows the principles of the Catholic Bonded Church. Therefore, the Chinese Catholic priest training curriculum does not appear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owever, i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hina's special situation toward socialism. First, the involvement of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in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operation of religious schools is extensive and influential. Second, although the curriculum maintains the universal curriculum, education in the area of Chinese philosophy and thought is being strengthened according to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of religious-sinicization.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various devices are prepared to implement socialist religious policies from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he contents of education. It remains to be seen what practical effects this device will have.</p>						
저 자	안승웅 / 安承雄 / Ahn Seung-Woong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2.02.01.	심 사 일	2022.02.23.	게재확정일	2022.03.11.